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 선택

1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지난번에 질문한 인(仁)의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은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입니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① 도덕규범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이치에 순응해야 한다.
- ②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恕] 한다.
- ④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아(無我)를 자각해야 한다.
- ⑤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고 정신적 자유[逍遙]를 누리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악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무지(無知)의 결과이다. 그 누구도 자신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하여 참된 앎을 얻어야 한다.</p> <p>을: 의지가 나약한 인간은 무엇이 선(善)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앎을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훌륭한 인간이 될지 보잘것 없는 인간이 될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A</p> <p>예</p> <p>B</p> <p>예</p> <p>갑의 입장</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니오</p> <p>C</p> <p>예</p> <p>을의 입장</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lt;범례&gt;</p> <p>□ : 출발 조건</p> <p>◇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p> <p>▭ : 사상가의 입장</p> </div>

- ① A: 선을 알고도 고의로 악을 행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 ② A: 도덕 판단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B: 영혼의 수련을 통해 진리의 상대성을 깨달아야 하는가?
- ④ C: 인간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도덕적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 ⑤ C: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하는가?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이유는 한 계층을 특별히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국가를 통치하지 않거나 통치자가 지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정의롭게 되는 것은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이 저마다 제 할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 ① 정의의 덕은 국가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②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게 된다.
- ③ 절제의 덕은 국가 안에 있는 세 계층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 ④ 지혜의 덕을 갖추지 못해도 정의로운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 실현된다.

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을: 사람의 본성은 타고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연 그대로의 질박함이 사라져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을 아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다.

- ① 갑: 사람이 지닌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 ② 갑: 욕심을 절제하여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야[求放心] 한다.
- ③ 을: 사람의 존귀함과 비천함은 덕의 유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④ 을: 성인(聖人)과 달리 소인(小人)은 본성의 교화가 불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사람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유래하는 행위의 필연성이 의무이다. 도덕 법칙은 이성과 의지를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타당해야 하므로 행복의 원리에 기초할 수 없다.

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하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 ① 갑: 선의지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이다.
- ② 갑: 자기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 ③ 을: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
- ④ 을: 최대 행복의 원리를 어긴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행위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모든 중생이 미혹하여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번뇌(煩惱)에 빠진 중생이라도 모두 당장에 깨닫게 된다.  
 을: 돈오(頓悟)를 하여 비록 본성이 부처와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달았더라도, 오랫동안 습기(習氣)를 단박에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해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룩해야 한다.

- ① 갑: 자성(自性)을 단박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 ② 갑: 참선이 아니라 경전 공부를 통해 본성을 자각해야 한다.
- ③ 을: 단박에 깨달았더라도 점진적인 수행[漸修]이 필요하다.
- ④ 을: 마음의 본체[定]와 마음의 작용[慧]을 함께 닦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

7. 다음을 주장한 현대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실제적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은 직접 혹은 중간 단체를 통하여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국민은 정부를 축출할 권리도 가지는데, 이것은 단지 유권자로서 특정 정치인을 선거에서 다시 뽑아 주지 않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탱하는 과반수를 다시 만들어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

ㄱ. 민주 국가의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ㄴ. 민주주의는 국민의 승인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경쟁 체제이다.  
 ㄷ.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ㄹ. 민주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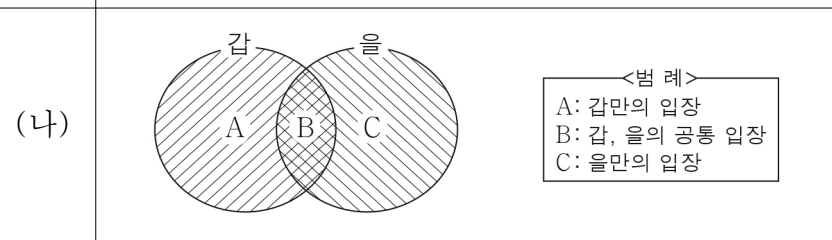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견해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모두 극단이다. 여래(如來)는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전한다.

- ① 중생이 겪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다.
- ② 인연(因緣)에 따라 생멸하는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
- ③ 연기(緣起)를 깨달아 존재의 실상을 통찰해야 한다.
- ④ 무명(無明)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도를 닦아야 한다.
- ⑤ 존재의 불변성을 깨달아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9.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心]은 성(性)과 정(情)의 주재자이다.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用]이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며, 예(禮)로 사양하고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을: 마음은 성이자 천리(天理)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을 뿐이니 밖에서 한 터럭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다만 마음에서 인욕(人欲)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



<보기>

ㄱ. A: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이치[理]는 존재한다.  
 ㄴ. B: 마음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ㄷ. B: 마음이 있는 곳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ㄹ. C: 마음을 항상 경건하게 하고[居敬] 선한 본성을 함양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애 따라 행위하려는 성향을 갖는 것은 올바르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첫 번째 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의 기초가 된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근거를 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	✓
인간은 자연법을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		✓	✓
인간은 자연법의 인식만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	✓	
인간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서양의 문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 나가야 한다. 우리의 것이 흥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도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오랑캐의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 우리의 도를 행하고 저들의 기를 본받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 보기 〉  
 ㄱ. 갑: 유교적 가치를 지키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  
 ㄴ. 을: 정덕(正德)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조화시켜야 한다.  
 ㄷ. 을: 서양의 종교와 우수한 과학 기술을 함께 수용해야 한다.  
 ㄹ. 갑과 을: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신분제를 철폐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고,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임무도 요구할 수 없다.  
 을: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는 욕망이다.

〈 보기 〉  
 ㄱ. 갑은 도덕적 선악이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과 을은 모두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이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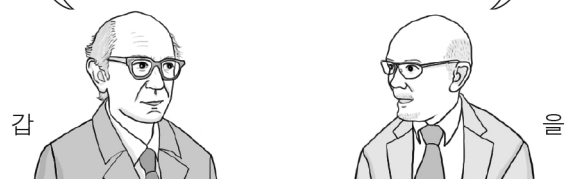
13.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情)은 하나인데 사단 혹은 칠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이(理)만을 말하는 것과 기(氣)를 겸(兼)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사단의 정은 맑은 기를 타고 발하여 형기의 사사로움에 가려지지 않아서 곧바로 따르므로 이를 주로 말한 것이다.  
 을: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마치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다름이 있는 것과 같다. 성에 대해 이와 기를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정에 대해서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갑: 사단은 선한 감정이고, 칠정은 악한 감정이다.  
 ②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같은 연원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③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다.  
 ④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감정이다.  
 ⑤ 갑과 을: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14.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이 자유를 무한히 누릴 수는 없지만, 개인이 간섭받지 않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의 경계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을: 개인은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된다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불간섭 상태가 아니라 비지배 상태에서 누릴 수 있으므로, 법치를 통해 자의적 권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① 갑: 개인의 자유는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질수록 증대된다.  
 ② 갑: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없다.  
 ③ 을: 시민은 법의 지배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④ 을: 시민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정치적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  
 ⑤ 갑과 을: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성인(聖人)은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서 본다. 자연에 비추어 보기에 이것과 저것의 대립 관계를 넘어서고 귀천(貴賤)의 구별도 두지 않게 된다.  
 을: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공(功)을 쌓으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일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 보기 〉  
 ㄱ. 성인의 다스림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ㄴ.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ㄷ.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소박(素樸)한 삶을 살아야 한다.  
 ㄹ. 예법(禮法)을 근본으로 삼아 도덕적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신적인 이성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적인 것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당할 때조차도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  
 을: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식탁에 있는 것들이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쾌락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로서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 ① 갑: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해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 ② 갑: 자유 의지를 발휘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꿔야 한다.
- ③ 을: 고통을 감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을: 사회 전체의 쾌락 증진을 위해 공적인 일에 헌신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절제하는 삶을 통해 쾌락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1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불의 시작이며, 측근하게 여기는 것은 인(仁)의 시작이다.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 확충되어 활활 타오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산불이 된다. 측근히 여기는 것이 확충되어 지극히 정성스러운 데까지 이르게 되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단(端)이란 시작[始]이지, 안에서 나오는 실마리[緒]가 아니다.

< 보기 >

- ㄱ. 천리(天理)인 사덕(四德)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일상에서 사단(四端)을 실천하여 사덕을 형성해야 한다.
- ㄷ. 측은지심은 마음에 인이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이다.
- ㄹ. 선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누구나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이 병은 때때로 번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으로 다가와 이 병이 내부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이 병을 극복할 수 없다.  
 을: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다. 인간에게 어떠한 본질을 부여하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류를 선택하는 입법자로서 자신과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닌다.

- ① 갑: 인간의 참된 행복은 객관적 진리를 인식할 때 실현된다.
- ② 갑: 인간은 주체적 선택과 결단으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 ③ 을: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이다.
- ④ 을: 인간은 사물과 달리 실현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신을 의지하지 않고도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19.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우리는 자신의 몸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라는 최고 지도 아래 두고, 각각의 구성원을 전체와 분할될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p> <p>을: 인류는 자연법의 집행권이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정부의 확립된 법 안에서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p> <p>병: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지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권을 상호 양도하고 국가의 구속 밑에서 살아가고자 한다.</p>
(나)	<p>&lt;범례&gt;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lt;예시&gt;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F: 개인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에 포함됨을 간과한다.
- ② B: 국가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을 간과한다.
- ③ C: 인간에게는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권력 분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E: 사회 계약을 맺기 전에도 개인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20.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극심한 불황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완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정부의 기능 확장은 경제 붕괴를 막는 방법이자 개인의 경제활동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을: 정부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무수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경제활동은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시장 질서를 무시하고 계획 경제를 강제한다면 사회는 노예의 길로 향하게 된다.

- ① 갑: 정부의 시장 개입과 자본주의 체제는 양립할 수 있다.
- ② 갑: 정부는 사회의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중앙 집권적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 ④ 을: 정부는 항상 자생적 시장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정부는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